

교육청 중심 음악영재 교육과정의 현황

이 미 경*

본 연구의 목적은 영재교육진흥법의 제정과 시행 이후 시작된 교육청 중심 음악영재 교육기관의 2009년도 교육과정을 분석하고 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함에 있다. 분석은 한국교육개발원에서 개발한 영재교육과정의 6가지 준거에 따라 조사자료들에 대한 양적·질적 분석을 통해 실시하였으며, 분석결과 음악영재교육과정의 전체적인 체계의 부재, 학생들의 개별적 요구에 따른 선택적 개방형 교육과정의 부족, 학생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교수학습 방법의 부재 등이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 주제어 : 음악영재교육, 음악영재 교육과정, 음악영재를 위한 전문성 심화과정

차 례

I. 서 론

II. 연구대상 및 연구방법

III. 결과 및 논의

IV. 결 론

* 한국교육개발원

I. 서론

음악분야의 영재교육이 ‘영재교육진흥법’이라는 법적 토대 위에 공식적으로 시작된 지 벌써 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수학과 과학영역을 중심으로 영재교육이 발전하는 가운데 음악을 포함한 예술분야의 영재교육은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 인문사회, 예술 등 여러 분야로 영재교육을 다양화시키려는 노력과 함께 예술분야 영재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음악영재들을 위한 교육과정의 구성과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요청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장의 요구를 수용하여 음악영재의 특성과 예술영재교육의 원칙에 맞는 교육과정을 만들고 있는 연구주체는 거의 없는 실정이며, 현장 적응력을 갖춘 프로그램들이 다급한 현장 교사들에 의해 조금씩 개발되고는 있지만 영재교육으로서의 원칙이나 수준과 무관하게 개발, 적용되고 있는 예도 적지 않다.

음악영재들은 다른 일반 아동들에 비해 음악 분야에서의 성취 수준이 높고, 내적 동기도 훨씬 강하다. 그러므로 음악영재교육과정은 이러한 영재들의 능력 수준과 내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과정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그러나 영재교육이 수월성을 추구한다고 하여 전문성의 추구에만 매달릴 수는 없다. 높은 전문성은 훌륭한 인격을 통해 발현될 때 그 가치를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오늘날에는 높은 전문성과 더불어 여러 분야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는 ‘융합적 창의성’까지 요구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므로 그 어느 때보다도 영재들이 갖고 있는 ‘창의적 요구와 특성’이 교육과정 중에 충분히 수용될 수 있어야 한다. 한국교육개발원은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영재교육과정의 6가지 기본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구자억 외, 2000).

첫째, 수월성을 지향하여 속진과 심화를 실시한다.

둘째, 인지적 교육과 정의적, 사회적 교육을 병행한다. 흔히 영재교육은 그 분야의 전문성만을 교육하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는 경향이 있

으나, 영재들 역시 일반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그 속에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조화롭게 살아가며 적절히 기능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줘야 한다. 또한 자신의 진로 탐색과 개인적인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는 능력 역시 병행되어야 한다.

셋째, 영재교육과정은 창의적 산출물의 생산을 격려한다. 영재들에게는 높은 수준의 학습내용을 토대로 자신들의 독창적이고 유용한 아이디어, 기능, 산출물 등을 생산하는 내용이 적어도 교육과정의 한 부분을 차지하여야 한다.

넷째, 학습자의 자율적인 선택과 책임을 강조한다. 영재들은 그들의 기호, 욕구, 능력 등에서 개인차가 크므로 다양한 대안들을 제공해주고 학습자의 자율적인 선택을 중시하여 그들의 다양한 흥미를 추구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다섯째, 과정과 활동을 강조한다. 가능한 한 교사의 일방적인 지시나 강의에 따라서 수업하기보다는 학습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을 많이 포함시키도록 해야 한다.

여섯째, 개방적이고 융통성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이미 정해진 계획이라도 학생의 필요에 맞게 변경시킬 수 있을 만큼 융통성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위의 6가지 기본특징은 음악영재교육과정에도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영재교육과정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위의 6가지를 기초로 음악영재교육과정의 평가준거를 구성하고 이 준거를 토대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음악영재교육과정의 교육과정구성과 교수학습방법 상의 문제 등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첫째, 음악영재교육과정은 전문성 심화를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내용을 제공하고 있는가

둘째, 음악영재교육과정은 전문성 심화와 더불어, 미래의 음악인으로서 혹은 음악적 능력을 활용하여 살아갈 전문인으로서 충분한 정의

적·사회적 교육을 병행하고 있는가

셋째, 음악영재교육과정은 창의적 산출물을 생산하는 과정을 포함하고 있는가, 수업과정은 학생들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표출할 수 있도록 충분히 자유로운가

넷째, 음악영재교육과정은 학습자의 자율적인 선택을 중시하여 그들의 다양한 흥미를 추구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가

다섯째, 음악영재교육과정은 교사의 일방적인 레슨 지도나 강의를 듣는 수업 외에 학습자가 스스로 주제를 선택하고 선택한 주제에 대하여 탐구하여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포함하고 있는가

여섯째, 음악영재교육과정은 학생의 요구에 따라 정해진 계획을 변경할 수 있을 정도로 개방적이고 융통적인가

이러한 평가준거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시도교육청 산하 음악영재 교육기관 교육과정의 구성, 교수학습방법 등을 검토하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연구의 대상 및 연구방법

1. 연구의 대상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전국의 시도교육청 산하 예술영재교육원과 예술영재학급 중 음악분야가 개설되어 있는 기관으로 제한한다. 통계자료에 의하면, 2009년까지 운영되고 있는 시도 교육청 산하 예술영재교육원 및 영재학급은 총 48개 기관 108학급 2103명이다. 이들 중 음악분야만 살펴보면, 총 20개 기관 30학급 611명이다(이미경 외, 2010).

<표1> 2009 음악영재교육기관 및 학생 현황

번호	지역	기관명	설치기관/ 학교	분야	대상학년	학급 수	학생 수
1	서울	남부교육청영재 교육원	대림중	기악	중1,2,3	1	20
2		중부교육청영재 교육원	용강중	기악	중1,2,3	1	20
3		강서교육청영재 교육원	염창중	기악, 작곡	중1,2,3	1	20
4		경복고 영재학급	경복고	기악, 작곡	고1,2	2	40
5		아현산업정보고 영재학급	아현산업정 보고	실용 음악, 성악	고1,2	2	30
6	경기	경기예술고 영재교육원	경기예고	기악	중1,2	4	80
7		계원예술고 영재교육원	계원예고	기악	중2	1	20
8		경원대 영재교육원	경원대	기악	초4,5,6 중1,2	2	30
9	인천	인천예술고 지역공동영재학급	인천예고	기악	중1,2	2	20
10	부산	부산예술영재 교육원	부산학생문 화회관	기악	중1,2,3	1	10
11	대구	대구시교육청 영재교육원	대구예술영 재교육원	기악, 합창	초,중,고	31)	131
12	강원	강원예술고 지역공동영재학급	강원예고	기악	초, 중	2	40
13	충남	충남예고 영재교육원	충남예고	기악	중1,2,3	1	15
14		충남학생회관 영재교육원	충남학생회 관	기악	초4,5,6	1	15
15	충북	삼양초 영재학급	옥천 삼양초		초5,6	1	20

1) 대구예술영재교육원에는 개인실기 20명, 합주 58명, 합창 53명, 국악합주 18명으로 총 149명이 음악분야 영재로 등록되어 있다. 이 중 국악분야는 이 연구보고서의 대상이 아니므로 제외하였음.

번호	지역	기관명	설치기관/ 학교	분야	대상학년	학급 수	학생 수
16	경북	동부초 영재학급	영주 동부초	리코더	초5,6	1	20
17		동신초 지역공동영재학급	김천 동신초		초4,5,6	1	20
18		형일초 지역공동영재학급	구미 형일초	관악	초6	1	20
19		문장초 영재학급	구미 문장초	성악	초5	1	20
20	전북	전주예술중 영재교육원	전주예중	기악	초3,4,5,6	1	20
계						30	611

2. 연구방법

1) 2009년도 예술영재교육기관 자체 평가보고서, 기관 홈페이지 상에 공지된 교육과정 정보 분석

예술영재교육기관 선발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총 16개 시도교육청 산하 예술영재교육기관 중 2009년까지 음악분야 영재교육이 개설되어 있지 않은 대전, 울산, 전남, 경남, 제주²⁾를 제외한 11개 시도교육청, 총 20개 기관에 기관 자체 평가보고서를 요청하였고, 부족한 정보를 보충하기 위하여 기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였다.

(1) 정보수집기간 : 2010년 2월 19일 ~ 4월 5일

(2) 정보수집대상 : 2009년까지 운영되고 있는 시도 교육청 산하 예술
영재교육원 및 영재학급 총 20 기관

(3) 수거된 기관 자체 평가보고서 수 및 수거율 : 총 10개 기관 수거³⁾ (50%)

2) 대전과 제주는 2009년도까지 예술분야 영재교육 기관이 전혀 없었음. 울산, 전남, 경남은 2009년도까지 음악분야 영재교육 기관이 없었음.

3) 10개 기관 명단은 참고문헌 참조

(4) 정보의 내용

기관 자체평가보고서 : 영재교육 목적 및 방향, 영재교육계획서, 교육과정의 구성, 교육과정의 내용, 교수학습 방법, 교수학습 환경, 학생 수행평가 방법

기관 홈페이지 : 교육과정 운영계획, 교육시간

2) 설문조사⁴⁾

음악영재교육기관 담당교사 및 강사, 학부모, 학생 대상 설문지를 제작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1) 대상 : 전국 20개 예술영재교육기관 담당 교강사, 학생, 학부모

(2) 설문지 제작 및 완성 기간 : 2010년 2월 8일 ~ 2월 19일

(3) 설문지 실시 및 수합

· 1차 : 2010년 2월 23일 ~ 3월 5일

· 2차 : 2010년 3월 15일 ~ 4월 19일

※ 1차 설문 실시 이후 수거율이 저조하여 2차 실시함. 설문지의 회수율은 <표 2> 참조.

(4) 설문지 회수율

<표 2> 설문지 회수율

	음악분야 전체 대상의 수 (명)	회수된 설문지 수 (부)	회수율(%)
학생용	611	74	12.1%
학부모용	611	62	10.1%
교강사용	233	58	24.9%

4) 이 논문은 2010년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예술영재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에서 실시한 설문조사결과를 일부 활용하였음.

(5) 설문내용

설문지는 각 대상에게 예술영재교육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만족도와 예술영재교육의 방향에 대해 묻는 설문지로서, 이 중 ‘교육과정’과 관련된 문항을 대상별로 4~7문항 포함시켰으며, 각 문항에 대하여 5점척도로 만족도를 표시하게 하였다. 대상별 ‘교육과정’ 관련 문항의 수와 문항내용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표 3> 설문지 대상별 문항 내용

대상	문항 수	문항 내용
교강사용	4	교육과정에 대한 만족도, 주로 사용하는 교수학습방법, 수준별 수업에 대한 만족도, 전공실기 수업시수 만족도
학부모용	7	교육과정에 대한 만족도,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수준별 수업에 대한 만족도, 교사의 전문성에 대한 만족도, 교사의 준비 정도에 대한 만족도, 수업방법의 적절성에 대한 만족도, 전공실기 수업시수 만족도
학생용	7	교육과정에 대한 만족도,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수준별 수업에 대한 만족도, 교사의 전문성에 대한 만족도, 교사의 준비 정도에 대한 만족도, 수업방법의 적절성에 대한 만족도, 전공실기 수업시수 만족도

3) 전문가 협의회

음악영재 교육과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3명의 음악영재교육전문가, 2명의 장학사, 4명의 음악교사와 협의하였다.

- (1) 일시 : 2010. 6월 16일(전문가, 장학사), 2010년 6월 17일(교사)
- (2) 장소 : 한국교육개발원

- (3) 내용 : 음악영재 교육과정 전반의 문제점 (전공수업시수, 수준별 맞춤형 교육의 실태, 교강사의 전문성, 수업운영기간, 수업방법 상의 문제, 정의적 사회적 교육에 대한 의견, 창의성 계발을 위한 교육과정의 문제, 선택형 교육과정 운영의 문제, 예산 문제 등)

3.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전국의 20개 음악영재교육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려 하였으나, 자체평가보고서의 수거율이 50%, 설문지 회수율이 10% 안팎으로 저조하여, 연구의 결과가 전체를 대표한다고 해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학생과 학부모 대상의 설문지 회수율이 특히 저조하여 2차에 걸쳐서 조사기간을 확대하였으나, 여전히 대상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받아 내지는 못하였다.

Ⅲ. 결과 및 논의

앞에서 제시한 6가지의 준거에 따라 기관 자체 평가보고서와 설문조사, 전문가 협의회를 통해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음악영재교육과정은 전문성 심화를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내용을 제공하고 있는가

영재교육과정이 일반교육과정과 구별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그것이 ‘차별화된 교육과정’이라는 점이다(Van Tassel-Baska, 2006). 영재를 위한 ‘차별화된 교육과정’이란 그 교육과정이 영재의 수준과 흥미에 맞게 충분히 심화된 교육내용과 전문성 획득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활동을 제공하고 있는가를 의미한다. 이를 점검해 보기 위하여,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음악영재교육기관의 교육과정들을 분석해 보았다.

각 시도교육청 예술영재교육기관에서 수집한 ‘자체평가보고서’에 기재된 내용과 전문가 협의회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발견된 주요한 문제점 중 하나는 심화학습을 위한 시간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와 관련된 내용들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영재교육 초창기 시행 시 개인지도였으나 예산이 점점 삭감됨에 따라 그룹별 지도로 변화되었고...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학생들의 수준 격차가 벌어져 보조강사 1인씩을 9월 이후에 투입하여 수준별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도모하였다” (00 예술영재교육원 교사, 자체평가보고서)

“영재교육대상자의 수준이 영재라기보다는 영재로서의 가능성이 발현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각 학생들의 수준차이가 많아 ... 맞춤형 교육과정 편성이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다” (00 예술영재교육원 교사, 자체평가보고서)

“음악영재교육의 경우 1:1 레슨으로 진행되어야 해서 예산이 많이 든다. 그러다 보니 시수를 줄일 수 밖에 없다. 또한 연간 100시간이라는 규정이 있는데 이를 따르다 보니 겨울방학 기간에는 레슨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 음악레슨은 계속 이루어져야 하는데 2개월여 기간동안 쉬어야 하니 전문성 심화가 이루어지기가 어렵다 ” (00 예술영재교육원 교사, 전문가 협의회 중)

이러한 발언들을 기초로 할 때, 음악영재교육기관의 수업시수는 전문성 심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제공되고 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또한 전문성 심화교육을 위한 수준별 맞춤교육도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문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첫째, ‘전문성 심화교육을 위한 충분한 수업시수가 제공되고 있는가’ 라는 ‘수업시

수'의 문제와, 둘째, '전문성 심화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한 '수준별 맞춤형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셋째, '교사들의 전문성은 충분한가' 라는 세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총 수업시수

수집된 자체평가서를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는 연간 수업시간을 조사하였더니 <표 4>와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표 4> 음악영재교육기관의 연간 수업시간 현황

시간	90~99	100~109	110~119	120~129	130~139	140~149	150이상	계	결측	총계
기관수	0	1	3	1	0	2	1	8	2	10

수업시간 총수는 연간 수업시수 약 110~119시간으로 운영하는 기관이 가장 많았다. 이는 100시간 이내로 운영하라는 지역교육청들의 권고로 인하여 대부분의 수학 과학 영재교육기관들이 100시간 전후로 운영하고 있는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다. 기관에 따라서는 전주예중 영재교육원 140시간처럼 방학 등을 이용하여 더 많은 시간을 운영하는 곳도 있다. 영재교육원의 수업시간은 거의 모든 조사대상 기관이 수업이 있는 토요일 오후에 4-5시간 썩 진행하고 있었다. 거의 대부분의 기관이 학기중 시간이 부족하여 방학을 활용하고 있는데, 방학을 활용하는 기관은 2박3일 등의 캠프를 실시하는 기관과 하루 5-8시간씩 3-10일정도 학교에 나와 집중수업하는 기관으로 구분되며, 그들간의 비율은 2:3 정도로 나뉘어진다. 연간 총 시수 110~119 시간은 격주 토요일 4시간씩 운영할 경우, 총 30 주동안 수업이 진행됨을 의미하므로 총 수업시수가 많이 부족하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교사들이 지적하는 것은 12월~다음해 3월까지 이르는 긴 방학인데, 이는 영재교육기관이 1년 단위로 운영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다(전문가 협의회). 영재교육기관의 운영단위를 1년 이상으로 연장하여 한 개별학생이 최소한 3년은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 긴 휴식기간 없이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시간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다. 만약 예산 부족이 문제라면 학생들로부터 약간의 교육비를 걷고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는 교육비를 면제해 주는 방식으로라도 계속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 않으면 이미 투입된 예산에 대한 교육적 효과가 열매를 맺기도 전에 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2) 수준별 수업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설문에 참여한 74명의 음악영재학생들에게 수준별 수업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는가에 대하여 물었다. 학생들은 만족도는 3.53(5점척도)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영재교육 전반에 대한 만족도나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만족도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만족도이다.

<표 5> 학생대상 수준별 수업에 대한 만족도 결과

설문내용	만족도 결과	빈도수	표준편차
수준별 수업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는가	3.53	72	.93
영재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3.9	74	.76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4.14	73	.72

동일한 질문을 학부모에게도 물어보았다. 학부모들은 더 낮은 3.27의 만족도를 보였다.

<표 6> 학부모대상 수준별 수업에 대한 만족도 결과

설문내용	만족도 결과	빈도수	표준편차
수준별 수업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는가	3.27	59	1.57
영재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3.8	59	.95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3.99	61	.81

또한 학생, 학부모 모두 이 질문에 대한 표준편차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어 개인에 따라 혹은 어느 영재교육원 소속이냐에 따라 만족도의 차가 많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대부분의 음악영재교육기관들이 1:1 실기 수업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이나 학부모들의 수준별 학습에 대한 만족도는 그리 높지 않다. 그렇다고 예산문제 때문에 개설자체를 꺼리는 지역들이 많은 현실에서 무조건 1:1 실기수업을 요구하는 것도 문제다. 더 많은 학생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음악영재교육기관을 확대하면서도 음악영재학생들 간 수준별 학습을 지원하는 현실적인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러한 관점에서 볼 때, 대구예술영재교육원의 운영방식은 하나의 좋은 사례로 보여진다. 대구예술영재교육원의 음악영재학생수는 모두 149명이다. 이 학생들은 개인실기반 20명, 합주반 58명, 합창반 53명, 국악합주반 18명으로 이루어져 있고, 합주반에서 매우 뛰어난이 인정된 학생들은 개인실기반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다. 물론 이는 대구예술영재교육원이 지역단위 영재교육원이고 학교시설을 빌려쓰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시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기도 하다. 그러나 외국의 경우 대부분의 공립 초등학교에 합주반이 있고 초급반과 상급반으로 나뉘어진 2개의 합주반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들도 많이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우리의 경우에도 각 단위학교 내에 합창단이나 오케스트라반이 운영되고 그들 중 뛰어난을 보이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개인레슨 등 심화교육의 기회를 열어주는 것도 좋은 방안 중 하나일 것이다.

3) 교사의 전문성은 충분히 높은가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현재 배우고 있는 예술영재교육원 교사의 전문성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7> 학생·학부모 대상 교사의 전문성에 대한 만족도 결과

설문대상	만족도 결과	빈도수	표준편차
학생	4.24	74	.74
학부모	4.22	61	.97

수업에 대한 교사의 준비정도에 대한 만족도도 물어보았다. 전문성은 높지만, 그 이유 때문에 수업자체는 충실히 준비해 오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표 8> 학생·학부모 대상 수업에 대한 교사의 준비정도에 대한 만족도 결과

설문대상	만족도 결과	빈도수	표준편차
학생	4.08	73	.79
학부모	3.86	59	1.53

두 결과 모두 만족도는 높은 편이다. 대체로 학생과 학부모들은 교사의 전문성에 대해 신뢰를 갖고 있으며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의 전문성은 투입되는 교사들의 연수경험 등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기관자체평가서에 따르면, 현재 음악영재교육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교사들은 거의 대부분 1회이상 예술영재교육 교사연수나 영재교육 교사연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문제는 실제 음악전공수업에 들어가는 교사들은 학교교사가 아니라 대부분 외부 강사들이고(예술영재교육현장에 투입되는 교사 대 강사의 비율은 32.6% : 67.4%이다(이미경 외, 2010)), 이들은 거의 연수를 받지 않은 상태라는 점이다. 강사들을 위한 연수 자체가 개설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⁵⁾. 그러므로 교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강사들을 위한 다양한 연수의 기회 확대가 매우 필요하다(전문가협의회).

또한 음악영재교육의 특성상 학교음악교사와 예술가강사 간의 협력적 관계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 역시 교사 개개인의 질을 끌어올리는 노력만큼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다. 현재는 예술영재교육기관을 담당하고 있는 학교예술교사가 지도교사로 존재하고 수업을 의뢰받은 외부강사가 수업만 하고 가는 형식이 대부분이다. 즉 학원교육을 장소만 학교로 옮겨 놓은 것에 불과하다. 이러한 상황은 개선되어야 한다. 학교교사와 외부강사들은 개별학생의 특성과 성장 속도에 대해 끊임없이 의견을 교환해야 하고 그들에게 가장 적절한 교육적 조치가 적시에 내려질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

5) 한국예술영재교육연구원에서 2009년 30시간 연수 1회 (30명 참여) 실시한 것이 유일함.

다. 그러므로 예술가강사-학교예술교사 간의 협력적 관계가 강화되기 위한 교사 연수 역시 개설되어 각자가 역할을 효율적으로 분담하고 서로 원활하게 협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음악영재교육과정은 전문성 심화와 더불어, 미래의 음악인으로서 혹은 음악적 능력을 활용하여 살아갈 전문인으로서 충분한 정의적·사회적 교육을 병행하고 있는가

조사대상 기관 10개 기관 중 인성교육 또는 봉사활동, 진로교육과 관련된 수업을 실시하고 있는 기관은 5개 기관이었다.

<표 9> 인성교육 또는 봉사활동, 진로교육과 관련된 수업실시 기관

교육기관명	교육내용	시수
부산예술영재교육원	나의 성격 바로알기	2
	진로 탐색	2
서울 경북고 영재학급	인성교육 I(다중지능)	2
	인성교육 II(다도체험)	4
전주 예중 영재교육원	봉사활동	4
충남학생문화회관 영재교육원	봉사활동	4
충남예고 영재교육원	인성교육(봉사활동)	3

전공수업하기도 부족한 수업시수에서 인성교육이나 봉사활동까지 교육 과정에 포함시키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기관들이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음악영재들의 인성은 별도의 시간이 필요 없고 양상블이나 합창교육을 통해 자연스럽게 형성될 것이라고 보는 교사들도 있다(전문가 협의회). 그러나 많지 않은 시간이라도 음악가들의 삶을 돌아보며 음악적 능력을 갖고 사회와 더불어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생각하게 하는 것은 특히 청소년 시기 영재들의 발달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교사들이 이와 같은 시간을 교육과정 중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관련 교수학습 자료들이 많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3. 음악영재교육과정은 창의적 산출물을 생산하는 과정을 포함하고 있는가, 수업과정은 학생들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표출할 수 있도록 충분히 자유로운가

‘작곡과정’이나 ‘즉흥연주’가 교과목에 포함되어 있는가로만 보자면(작곡 전공의 경우 제외), 조사대상기관 10 기관 중 2곳만이 그와 같은 과목을 교육과정계획에 명기하고 있다. 음악영재들의 교육에서, 그 전공 여하를 떠나 학생들에게 자신만의 음악을 생산하는 과정을 경험하게 하는 것은 매우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음악영재의 영재들의 창의성 계발이 작곡 관련 교과목이 있는가 없는가로만 판단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창의적 아이디어의 표출은 전공실기 시간에도, 앙상블 시간에도, 이론수업 시간에도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들의 창의성을 독려하는 교사의 자세와 교수방법일 것이다. 음악영재교육은 대개 학생 개인에게 교사가 일대일로 수업하는 레슨방식으로 운영되므로, 학생들의 개개인의 성향에 맞는 자발적 교육을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그 조건은 다른 한편으로는, 오히려 학생의 자발성을 유도하기 보다 교사의 권위적인 지도를 용인하는 조건으로 작동되기도 한다(전문가 협의회). 그렇게 되면 학생들은 스승의 스타일을 무조건 따라해야 하고, 그러한 학습이 반복되는 동안 스스로의 발견력이나 해석력 등은 사라지고 교사의 경험과 능력에 지나치게 의존적이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자발성과 창의성을 존중하고 자긍심을 심어주는 교사로서의 자세와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 영재교육의 교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와 이러한 교사를 양성할 수 있는 연수체계 등이 선결되어야 한다.

4. 음악영재교육과정은 학습자의 자율적인 선택을 중시하여 그들의 다양한 흥미를 추구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가

지금까지의 우리나라의 중고등과정 음악전문교육기관들의 교육과정은

각 교과목들간 서로 지나치게 독립적이고 분리적이었다. 일반학과의 교과과정은 예술영재에 대한 어떠한 고려도 없이 일반교육과정을 그대로 따르고, 예술전공과목의 경우에는 오로지 예술적 능력의 계발을 향해서만 설계되어 있었다. 그러나 예술영재의 특성에 대한 많은 연구들은 예술영재성 발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 -자기 발견, 자기동기, 자긍심-도 교육과정이 담아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구자익 외, 2000, Van Tassel-Baska, 2006).

음악영재교육이 시작되면서 가장 큰 긍정적인 효과 중 하나는 ‘교육과정의 다양화’라 할 수 있겠다. 전체적으로 교육과정은 아래의 예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학교별로 매우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다. 과거 예술중학교나 예고의 음악반 교육과정보다는 진일보한 측면이다. 그러나 여전히 일부 영재교육원의 경우는 기존의 전공실기교육과정과 유사하게 운영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례3>이 그 예이다.

<표 10> 사례 1. OO 음악영재교육원(기악전공)

구분	내용	시수	비율
전공 실기	개인레슨	36	57.14
	앙상블	16	
	마스터클래스/특강	4	
	발표회	8	
음악 활동	컴퓨터음악	4	23.22
	합창	6	
	창작과정 활동	8	
	타예술장르의 이해(전통음악)	4	
	음악회 관람	4	
전공 이론	시창, 청음	0	8.93
	음악사 및 음악이론	10	
타교과	비예술교과통합수업 (공동체훈련, 수학특강, 과학특강, 정보특강)	8	7.14
기타	입학, 수료식, 교육안내	2	3.57
	영재성 평가	2	
합계		112	100.00

<표 11> 사례 2. OO 음악영재교육원(기악전공)

구분	내용	시수	비율
전공 실기	전공분야의 전문성을 길러주는 수업	12	45.30
	국제음악캠프 특별공개수업	5	
	앙상블 수업	8	
	개인공개레슨을 통한 공개수업	16	
	향상음악회, 수료음악회	12	
음악 활동	컴퓨터음악	12	18.80
	합창	6	
	체험학습	2	
	음악특강	2	
전공 이론	기초음악이론, 시창, 청음	11	30.77
	서양음악사 및 화성학	11	
	우리음악의 이해	8	
	기악곡의 이해	6	
기타	나의 성격 바로알기	2	5.13
	진로탐색	2	
	입학식 수료식	2	
		117	100.00

<표 12> 사례 3. OO 음악영재교육원 피아노 전공 과정

구분		내용	시수	
전공 실기	1학기	스케일 및 아르페지오 지도	12	9
		고전파 음악지도	12	9
		테크닉지도 및 고전음악지도	16	11
		연주곡 지도	24	17
		발표곡 지도	4	3
	2학기	스케일 및 아르페지오 지도	16	11
		낭만파 음악지도	12	9
		테크닉 지도 및 현대음악지도	20	14
		연주곡 지도	20	14
		발표회	4	3
		합계	140	100

교육과정을 다양하게 운영하려는 시도 중에는 <사례1>의 경우와 같이 ‘타분야에 대한 이해’라는 수업을 통해 예술영재들의 시각을 넓히려는 시도가 종종 발견되고 있다. 타교과의 통합교육이나 타예술 장르와의 통합

교육프로그램은 아직 많은 기관에서 진행되고 있지는 않다. 일부 기관에 도입되어 있는 사례들도 ‘통합’이라기 보다는 ‘타분야 맛보기’ 프로그램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서울시의 경우 강서교육청이나 동작교육청 영재교육원에서처럼 음악강사 또는 수학강사가 서로 교환하여 수업하는 ‘수학과 미술/음악과의 만남’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고, 음악전공영재들에게 국악의 장구배우기(충남예고) 등을 도입하거나, 국악영재들에게 서양악기배우기(전주예고) 등을 도입하는 경우도 있다. 음악과 타 예술장르 혹은 음악과 타교과 간의 통합교육은 전문음악교육이 지나치게 실기위주로 운영되면서 교육의 불균형이 발생되고 있다는 문제의식과 ‘융합’ 담론의 부상이라는 사회적 변화와 맞물리면서, 앞으로 계속 그 요구가 증가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통합수업의 의미와 긍정적·부정적 효과, 통합프로그램의 개발, 교수학습 방법 등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야 한다.

5. 음악영재교육과정은 교사의 일방적인 레슨 지도나 강의를 듣는 수업 외에 학습자가 스스로 주제를 선택하고 선택한 주제에 대하여 탐구하여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포함하고 있는가

음악영재교육의 경우, 전공실기 수업이 중심이기 때문에 강의식 수업보다는 실기 수업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각 기관의 자체평가보고서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음악전공의 교수학습 방법은 크게 <표 13>과 같이 구분된다.

<표 13> 교수학습 방법(기관자체평가보고서)

교수학습 방법	비율
교사주도(강의)	21%
실험, 실기, 토론	63%
프로젝트, 개인연구 등	16%

※ 교사주도 강의 : 작가특강이나 이론 수업

※ 실험, 실기, 토론 : 전공실기 수업

※ 프로젝트, 개인연구 : 연주발표, DVD제작, 작곡 작품집 등을 제작하는 활동,

프로젝트형 수업이나 개인연구 등의 방법이 차지하는 비율이 낮은 편인데, 이는 수업이 주로 실기수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학생들이 개인으로 혹은 소집단별로 큰 주제를 중심으로 스스로 문제를 만들고, 토론하고, 해결하는 프로젝트 형 수업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수업방법의 적절성에 대하여 학부모와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는, 학부모 3.34, 학생 3.52로 상대적으로 낮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표 14>참조).

<표 14> 학생·학부모 대상 수업방법의 적절성에 대한 만족도 결과

설문대상	만족도 결과	빈도수	표준편차
학생	3.52	72	.62
학부모	3.34	60	1.13

수업방법에 대한 낮은 만족도의 원인으로 전문가들은 첫째, 딱딱한 이론수업, 둘째 일방적인 레슨 지도를 들고 있다(전문가 협의회). 이론수업 대부분이 ‘음듣고 받아적기’나 음악통론, 화성법 등을 일방적으로 강의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흥미나 동기가 떨어지고, 1:1 레슨의 경우에도 주로 외부강사들이 맡으면서 과거의 교습방식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어 음악영재의 교수학습방법 상의 문제는 앞으로도 많은 연구와 개선이 필요하다 하겠다.

6. 음악영재교육과정은 학생의 요구에 따라 정해진 계획을 변경할 수 있을 정도로 개방적이고 융통적인가

영재학생이 찾아오면 그의 전공에 맞는 교사와 교육과정을 만들어주는 ‘학생 중심의 선택적 교육과정 운영’이 영재교육과정으로는 가장 이상적이다. 선택적 교육과정은 여러 다양한 수업을 개설하고 학생들에게 선택적으로 수업을 들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조사결과 현재까지 이러한 학생 중심 선택적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은 1곳도 없었다.

그러나 해외 영재교육기관의 경우에는 학생 개인에게 초점을 맞추어 주

요과목 외에 학생의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들을 수 있는 여러 과목들을 개설해 놓고 있는 예를 종종 찾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하노버 음대에서 주말마다 운영하고 있는 음악영재교육원(Institut zur früh-Förderung musikalisch Hochbegabter)에서는 주요 3과목(전공실기, 이론, 리듬교육(3학기부터는 지휘)) 외에 실내악, 음악사, 형식론, 음악문헌, 부전공, 이태리어 등 여러 가지 선택과목을 개설해 놓고 학생이 지도교사와의 협의 하에 자신이 들어야 할 과목을 선택해서 듣도록 하고 있다.⁶⁾ 우리나라도 이제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학점형 선택제 교육과정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일반교육과정에서도 이러할진대, 영재교육과정에서는 더 말할 나위 없이 학생의 개별적인 수준과 취향에 따른 선택형 교육과정의 운영이 점차적으로 도입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학생 중심의 선택적 교육과정’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예산이다. 그러나 전문가 협의회에서 한 교사가 제안한 것처럼, 16개 시도교육청마다 학생의 요구와 교사의 수급상황에 맞춰, 어느 학교는 현악기 중심, 또 다른 학교는 관악기 중심 등으로 구별하여 운영하면, 그룹지도도 가능하고 1명의 학생을 지도하기 위해 1명의 교사를 모셔야하는 시간과 예산 낭비 등을 다소 줄일 수 있을 것이다(전문가 협의회). 또한 학생의 입장에서 볼 때도, 자신이 속한 지역 내에 적어도 1기관은 자신의 전공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곳이 있으므로 교육의 기회 자체가 제한 받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지역의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 융통성있는 교육과정의 설계가 필요하다 하겠다.

IV. 결 론

지금까지의 음악영재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개발의 현황조사와 전문가들과의 협의회를 통해 발견한 문제점들로부터 개선할 점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6) <http://www.iff.hmtm-hannover.de/>

첫째, 전문성 심화라는 측면에서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그리 높게 나오고 있지 않다. 이는 교사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전문성 교육에 투입되는 수업시수의 부족이 그 원인 중 하나 일 수 있겠다. 그러나 이 문제가 전문성 교육의 효과가 점차 심화과정으로 유연하게 이어지는 교육과정의 전체적 체계의 부재에서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현재 전체적으로 음악영재교육과정의 큰 틀이 제대로 잡혀져 있지 않은 상태이다. 그러므로 수준별 심화과정이 학생의 발달단계에 맞게 체계화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체계적 교육과정의 부재'가 전문성 심화교육의 단절을 초래하는 한 원인일 수도 있다.

둘째, 음악영재교육이 시작되면서 음악영재를 위한 교육과정이 다양해졌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그러나 기관마다 다양한 수업활동이 있으나 전체로서의 연계성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영재교육과정에서 인성교육이나 창의성 계발을 위한 교육 등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나, 이들은 교육과정의 전체 체계 속에서 적절하게 배치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연령대별로 충분히 익히고 계발시켜야 할 예술적 지적 능력들은 무엇인지 등에 관한, 그리고 음악영재들이 미래창의인재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창의적 교육과 전통적인 실기교육이 어떻게 접목되어야 하는지 등에 대한, 국내 상황에 맞는 음악영재교육과정의 전체적 틀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셋째, 학문분야 영재교육에 비해 강의식 수업보다는 '실기'나 '개인연구'의 수업방법이 차지하는 비중이 현저히 높지만, '개인연구'나 '실기수업'이라고 여기는 '레슨방식' 역시 교사들이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과거의 관행에서 크게 벗어나고 있지는 않다. 이는 전공실기의 경우 주로 외부강사들에게 맡겨져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과거의 교습방식을 답습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므로 이 문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예술가 강사들에 대한 영재교육연수가 진행되어야 하고, 학교 영재 담당교사와 외부 예술가 강사 간 교사회회의도 정기적으로 개최되어 외부 예술가강사들이 예술영재교육의 목표와 의미등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넷째, 영재교육은 근본적으로 개별 맞춤형 교육이다. 그러므로 하나의 정형화된 프로그램을 그대로 교실현장에 적용하게 하는 것 보다는 한 교실 내에서도 수준별 집단을 구분하여 보다 수준에 맞는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설계되는 것이 좋다. 현재까지 개발되어 있는 예술영재교육 프로그램들은 여전히 교실 내 모든 아이들에게 동일한 내용을 전달하는 수업이 대부분이며, 레슨식 수업을 제외하면, 개별과제의 제시나 선택의 기회는 제한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다섯째, 개발된 교수학습자료가 워낙 부족하다보니 새롭게 해보고 싶은 교사들의 의욕에도 불구하고 교실에서의 실제 수업은 기존의 교육방법과 교육내용을 답습하는 상황이 주를 이루고 있다. 새롭고 효과적인 예술교육방법론,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적극적인 연구가 필요하고 이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특히 전문연구자 수가 지극히 부족한 예술분야의 경우 현장교사들이 해외의 좋은 교육과정과 프로그램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교환의 장을 많이 만들어야 한다.

참 고 문 헌

1. 간행물 및 논문

- 구자역 외 (2000). 영재교육과정 개발연구(II) (수탁연구 CR 2000-).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김정희 (2007). 미술영재 교육과정 모형에 대한 연구. 미술교육논총, 제21권 2호, 61-82쪽.
- 이미경 외 (2006). 예술영재교육대상자 선발모형 개발연구(I) (문화예술교육 06-02) 서울: 문화관광부·한국예술영재교육연구원.
- 이미경, 강병직 (2010). 예술영재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수탁연구 CR 2010-18)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과학창의재단.

- 이해명 (2002). 영재교육과정 개발과 과제 : 과학 영재 교육센터 교육과정 운영 사례 분석. *영재와 영재교육*. 제1권 제1호, 91-124쪽.
- 한기순 (2006). 국내 영재교육 프로그램의 현황과 과제. *영재와 영재교육*. 제5권 제1호, 110-129쪽.
- Clark, G. & Zimmerman, E. (2008). 미술영재교육 : 이론과 실제 (*Teaching talented art students, 2004*). 홍소영 역. 서울: 미진사.
- Clark, G. & Zimmerman, E. (1998). *Nuturing the arts in programs for gifted and talented students*. Phi Delta Kappan, 79(10), pp. 747-752.
- Daniel, R. (2000). Performing and visual arts schools : A guide to characteristics, options, and successes. *The Journal for Secondary Gifted Education*, 12, pp. 43-48.
- Eisner, E. W. (1996). Qualitative research in Music education: Past, present, perils, and promise. *Council for Research in Music Education*, 130, pp.8-16.
- Seeley, K. (1996). Arts curriculum for the gifted. In J. Van Tassel-Baska (Eds.), *Comprehensive curriculum for the gifted learners* (2nd. ed.). Boston: Allyn & Bacon.
- Smith, R. A. (1991). An excellence curriculum for arts education. In R. A. Smith & A. Simpson (Eds.), *Aesthetics and arts education*. Urbana : University of Illinios Press.
- Smutny, J. F. (2002). Integrating the arts into the curriculum for gifted students. Arlington, VA: ERIC Cleringhouse on Disabilities and Gifted Education.(ERIC Document Reproduction Service No. ED470524).
- Tomlinson, C., Kaplan, S., Renzulli, J., Purcell, J., Leppien, J., & Burns, D. (2002). *The parallel curriculum model: A design to develop high potential and hallenge high-abilitylearners*. Thousand Oaks, CA: Cowin Press.
- Van Tassel-Baska, J. (2006). *Comprehensive curriculum for gifted learners* (3rd ed.). Pearson/A&B.

Van Tassel-Baska, J. (1994). Verbal arts for the gifted, In J. Van Tassel-Baska(Eds.). *Comprehensive curriculum for gifted learners*(2nd ed.). Boston: Allyn & Bacon

2. 기관 자체평가보고서 및 홈페이지 주소

강서교육청영재교육원 기관자체평가보고서

<http://ms0912.hosting.ssem.or.kr/custom/custom.exe?dcpNo=20956>

강원예술고지역공동영재학급 기관자체평가보고서

[www.gwarts.hs.kr\(cafe.daum.net/kwayj\)](http://www.gwarts.hs.kr(cafe.daum.net/kwayj))

경북고 영재학급 기관자체평가보고서

<http://www.kyungbock.hs.kr/>

대구시교육청 영재교육원 기관자체평가보고서

www.dgeias.or.kr

부산예술영재교육원 기관자체평가보고서

www.becs.kr/young.asp

인천예술고 지역공동영재학급 기관자체평가보고서

<http://in-art.hs.kr/?act=board.list&code=20>

전주예술중 영재교육원 기관자체평가보고서

<http://www.fineart.ms.kr/>

중부교육청 영재교육원 기관자체평가보고서

충남예고영재교육원 기관자체평가보고서

www.cna.or.kr

충남학생회관영재교육원 기관자체평가보고서

<http://www.cnsh.or.kr/>

3. 인터넷 자료 (최종검색 2010. 08. 20)

독일 하노버 음대 음악영재교육연구소 <http://www.iff.hmtm-hannover.de/>

ABSTRACT

Analysis of the operational state of the curriculum for musically gifted students

Mi-Kyung Lee

The educational objectives of the curriculum for the musically gifted are to develop their own potential through the enrichment of subject matters. In addition, the curriculum should have objectives to develop the abilities and attitude of leading the stream of social change, and enhance responsibilities which can establish the social and ethical consciousness. In this study, the current operational state of curriculum of gifted educational institutes in music area is analysed in line with the general guideline for the gifted curriculum which is developed by KEDI(1999). The general guideline is composed with 6 criteria : the gifted education curriculum should include 1) the enrichment programs for developing student's expertise, 2) the programs to enhance student's social and ethical responsibility, 3) the programs to foster student's creativity, and 4) it should be the student-centred curriculum to strengthen student's autonomy and self-confidence, 5) the process and activities-centered curriculum, and 6) open curriculum with enough flexibility. The key findings of analysis are identified by follows: 1) the lack of standards for program designed for gifted and talented students in music, 2) the lack of flexible grouping of gifted learners for instruction and optional curriculum designed for the diverse individual needs of the gifted students, 3) the lack of traditional teaching and learning methods dominated by teacher's authority.

Key Words : gifted education in music, curriculum for the musically gifted students, enrichment program for gifted learners

투고일: 9월 30일, 심사(수정): 11월 1일(11월 13일), 게재확정일: 12월 3일